



CONTENTS

PART 1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상호텍스트성'

① 'Base'를 찾아 Text 연결하기 - 유형 ① HW+SW	12
② 'Base'를 찾아 Text 연결하기 - 유형 ② 개념정의	24
③ 'Base'를 찾아 Text 연결하기 - 유형 ③ 지문융합	36
④ (가), (나)지문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 신유형 ①	52
⑤ (가), (나)지문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 신유형 ②	66

PART 2 '문장'의 원리 '핵심 주어'와 '핵심 서술어' 구분하기

① '핵심 주어'와 '핵심 서술어' 구분	86
② 앞의 내용 연결 (동격, 심화)	100
③ 대조	112
④ 인과 (원인[C] & 결과[E])	124
⑤ 예시와 가정	136

PART 3 '지문'의 원리

① Q&A의 논리	148
② 병렬의 정보체계구성 - 유형 ①	158
③ 병렬의 상위/하위 정보 연결 - 유형 ②	168
④ 과정, 순서, 통시적 구성	176

PART 4 '지문'과 '문단'의 원리

① HW+SW 적용 심화 지문	188
② 이항대립 적용 심화 지문	198

〈분석방법 이해하기〉 – “지문”

① 제일 중요한 내용

정의(개념), 의문제기(답), 결과(인과), 계산식, 비례&반비례(~수록 ~하다), 문제상황&해결방안 조건(가정 ; ~면~ 경우, ~때, ~따라) ~하다

① 제일 중요한 내용

: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 >로 표시합니다.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나 적어도 어떤 기준으로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는지는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선생님의 기준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
긴 지문일수록 정보들의 위계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 >에 해당하는 미시 독해의 핵심 원리들은, 표시하는 동시에 꼭 이해하며 읽어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의(개념) – Definition

: 정의는 지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선지에서 개념의 정의 자체를 그대로 끌고 와서 워딩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내용 일치-불일치 형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정의엔 []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 >로 처리하여 개념을 확인하면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선지에서 다시 지문으로 올 때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의문제기(답) – Question & Answer

: 의문을 제기하는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독자에게 의문을 제기하며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과 중간 부분에서 핵심 내용을 심화하기 위해 논지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죠. 대개 처음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짐작하며 읽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읽으면 됩니다. 물론, 보통은 답은 바로 나오는 편이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답이 이후 어떻게 구체화되고 심화되는지를 잘 따라가면 3점짜리 어려운 문항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 이하에서 나오는 의문제기&답변의 유형은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자체가 핵심이 되죠. 중간 이하에서 질문을 제기할 땐 처음에 던져놓은 화두를 바탕으로 구체화한 개념을 한 단계 심화해서 어렵게 접근하려는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보기> 문항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인과) – Effect

: 인과는 사실 ‘원인’과 ‘결과’ 모두가 중요합니다. 실제 선지에선 둘 다 중요한 비중으로 오답과 정답의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원인과 결과의 기호를 구분한 이유는 실제로 문장에서 위계를 나눌 땐 그 문단의 결과 문장에 주목하면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도 원인과 결과를 나눠서 상황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체계를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통, ‘따라서, 그 결과, 결국, 그리하여~’ 등의 표지어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문장들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

계산식 – Formula

: 계산식은 반드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출제됩니다. 글로 쓰인 수식들은 분수나 공식으로 바꾸어 정리해두면 비례&반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편리하죠. 이 때, 계산식의 변수들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꼭 이해하며 독해해야 합니다.

비례 – Proportion & 반비례 – Inverse Proportion

: 비례&반비례 개념이 나올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살표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하고, 시험지의 빈 공간에 개념들을 정리해서 일련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통 ‘~수록 ~하다’라는 문장으로 표시되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별표부터!

문제상황 – Problem & 해결방안 – Solution

: 수능 독서 지문의 목표는 대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구체화되거나 심화된 내용을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래를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땐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해결 양상에 주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도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 직접 방식 또는 ㉡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

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01 읽기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

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으면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BO
HW

BO
구체화

B2

B2
심화

항원

항원

미시분석

1문단

1)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2)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이러한 필요에 따라 /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4)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반응을 말한다. 5)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 휴대성이 높고 / 분석 시간이 짧음 /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문장 1) 분석

원인[C]

(건강 상태 진단 or 범죄 현장의 혈흔 조사를 위해)

결과[E]

→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사고 영역의 기준

서두에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개념이라도 잡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핵심 주어와 서술어에 집중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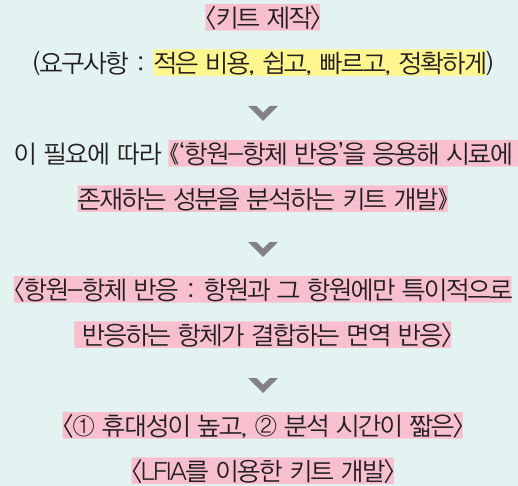
특히, 재진술되는 정보는 무조건 이해하며 생각해야해. 즉, 1번 문장의 많은 정보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핵심 원인이고, 어떤 부분이 결과인지를 생각하며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좀 더 쉽게 들어올거야. 잊지 말고, 앞부분 거미손분석도 참고하며 읽어봐 ^^

행동 영역의 기준

- 첫 문장은 항상 심플하게 기억하기!
- 원인과 결과 문장에선 '결과'를 중심으로 독해할 것!

문장 2) 3) 4) 5) 분석

핵심은 "문장1)의 화제 구체화"



요약하면, 키트 제작에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한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이 중 LFIA를 이용한 다양한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

사고 영역의 기준

첫 번째 문장은 앞서 말했듯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떤 구조가 나오게 될지 여러 부분들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집중해서 봐야해. 그렇지만, 꼭 기억하고 가야하니 핵심 내용을 위주로 심플하게 기억해야하고! 실제 지문의 비율로 따지면 1~2 문단은 구성상으론 작은 부분이지만, 지문 전체의 핵심 내용을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50%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깐.

이 때, 모든 정보들을 한번에 짝 정리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핵심 주어와 서술어를 분리한 후, 재진술되는 정보를 끌고가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아. 1문단의 내용을 보다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선 계속해서 내용을 구체화하며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즈음에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

문장1)의 결과 문장에서 '검사용 키트'에 대한 언급이 있고난 후, 문장2)에서 바로 '키트의 제작' 이야기를 시작하며 구체화했으니 이제 제작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해. 이 때,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말의 재진술이라 ○ 표시가 적용된거야. 그리고 문장 3)과의 관계로 보면 '문장2)의 필요에 따라'가 되니 문장2)는

01

정답해설

③ [2문단] LFIA 키트에서 검사선의 발색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표준선의 발색은 검사의 정상적인 진행 유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2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만 했다면 표준선은 무조건 발색하는 것이고,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표준선이 발색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직접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이 없을 때, 경쟁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서, 검사선과 표준선의 발색 여부는 서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므로 관련이 없다.

오답해설

- ① [2문단] LFIA 키트의 시료 패드는 키트의 맨 앞에서 시료를 흡수하고, 흡수 패드는 키트의 맨 뒤에서 반응 후 남은 시료를 흡수하므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 모두 시료를 흡수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1문단] 직접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이 항원의 역할을 하고, 표지 물질에 붙어있던 특정 물질이 항체의 역할을 한다. 경쟁 방식에서도 역시 목표 성분이 항원의 역할을 하고, 이 때 검사선이 항체의 역할을 맡는다. 두 방식 모두 목표 성분이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④ [2문단]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을 통해 색깔을 낸다. 이 때, 발색 반응은 반응선이 발현되게 하여 목표 성분의 유무가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3문단] 경쟁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검사선이 발색된다.

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논리부정 (상반) A → not A	인과 역전 A → B ←	주체 왜곡 A&a/B&b → A&b/B&a	논리곱/합 (and/or) (100%/예외)	오답 / 부재
①					
②					
③			v		
④					
⑤					

02

정답해설

① [3문단] ㉠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표지 물질에 결합된 특정 물질(항체)과 결합을 하지만, ㉡은 검사선에 도달할 때 그곳의 항체와 결합한다.

오답해설

- ② [3문단] ㉠과 ㉡ 모두,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그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
- ㉠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 ㉡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시료의 목표 성분 역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
- ③ [2문단] ㉠과 ㉡ 모두, 키트의 구조에 따라 표준선이 검사선 뒤에 존재하므로, 시료도 검사선에 먼저 도달한다.
- ④ [2문단] 정상적인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과 ㉡ 모두 반응막에 표준선이 나타나고, 검사선은 ㉠에서만 나타난다. 표준선과 검사선 모두 반응선의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
- ⑤ [3문단] ㉠과 ㉡에서 각각 목표 성분은 표지 물질에 결합된 특정 물질, 그리고 검사선의 항체와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한다. 표지 물질과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루지 않는다.

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논리부정 (상반) A → not A	인과 역전 A → B ←	주체 왜곡 A&a/B&b → A&b/B&a	논리곱/합 (and/or) (100%/예외)	오답 / 부재
①					
②	v				
③	v	v			
④	v		v		
⑤	v		v		

2020 수능 1등급 검토진 후기

백인혁

서울대학교 의예과 20학번,
2020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
원점수 98

많은 학생들이 수능 국어 공부에서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어떻게 푸는지 기억하는 것만으로 기출 공부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제 주위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는 기출문제에서 적용된 원칙이 올해 수능에서도 적용될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즉 그 원칙(지문과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틀린 선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현주 선생님의 거미손은 아주 탁월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의 지문을 문장 단위로 잘라서 각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수험생이 '기출 학습'이라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작업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거미손에 실린 선생님의 지문 분석과 같은 정도의 생각을 다른 기출 지문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할 수 있다면 기출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2022학년도 수능을 응원합니다. :)

강민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0학번,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원점수 100

국어 과목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단순히 풀이 방법만 암기하고 지문을 읽는 방법으로는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고, 집을 지을 때처럼 기반을 확실히 쌓아두고 그 위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반을 쌓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가원이 출제한 '기출'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출을 푸는 것에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것 또는 맞고 틀리는 것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평가원이 지문 내에 숨겨둔 다양한 독해원리나 출제포인트 등을 분석하는 데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출을 보았다고는 하지만 '훑어본' 것에 그친다면 이는 마치 금융 짜라시를 보고 금융계의 흐름을 전부 파악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20학년도 수능을 마치고 고3 수험생들의 과외를 여럿 진행하면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거미손 교재로 비문학의 기본을 같이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이 지문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구조의 지문은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지 등이 세세하게 나와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손글씨를 통해 더더욱 빠르게 방법을 터득해낼 수 있었습니다.

거미손 교재로 새롭게 비문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지문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어 부담감을 덜 수 있다고, 교재를 접하기 전보다 지문을 읽는 속도도 빨라졌다는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저 또한 수업하면서 제가 수능을 준비할 때 놓쳤던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미손 교재를 통해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이 기출 분석의 새로운 '맛'을 아셨으면 합니다. 기출 분석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여러분들께 저는 감히 거미손을 추천합니다.

윤준영

아주대 의예과 20학번,

19수능 원점수 96

20수능 원점수 98

'거미손'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국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나, 하면 저는 단연코 '독서'라고 말 합니다. 문법은 암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철저한 EBS 교재의 공부와 기출 선지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빠른 선지와 내용의 대응을 연습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읽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내용 정리와 독해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거미손'과 함께라면, 자신도 몰랐던 자신만의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현주 선생님과 함께, 도구를 사용하여 기출 문제에 나온 어려운 지문들을 단순한 구조로 쪼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꼭, 22수능 1교시를 웃으면서 끝냅시다! 파이팅!!

안석빈

원광대 치의예과 20학번,

19수능 5등급 20수능 1등급

거미손은 평상시 독서 지문을 풀 때 아무런 행동이나 생각 없이 풀고, 각 문단마다 중요한 내용을 일관성과 가독성 없이 표시하면서 독해하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문을 일관성과 가독성 없이 표시하며 읽는 학생들을 위해 거미손에서 독해 표시부터 정의해 주고, 지문도 따로 현주쌤이 직접 독해 표시해 분석한 분석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화하기에도 매우 좋았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지문을 일관성 없이 처리하면서 읽던 학생들이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미손 교재는 구성도 매우 컴팩트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바로 지문 단위가 아닌 문장 공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기본적인 원리로 주어, 서술어를 찾고 대조, 인과, 예시, 동격, 가정 등으로 문장을 찾아 구분하는 연습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의 이런 구성 덕에 독해의 기본인 문장을 시작으로 다뤄줘 독서 공부를 한결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학 가능하도록 거미손 문장 분석 학습지도 교재 안에 들어있어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체화하기에도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거시와 미시 독해에 대한 학습도 현주쌤이 직접 거시, 미시 가이드를 제시한 분석 지문도 칼라로 포함되어 있어 독학으로 훈련하기에 편했습니다. 여기에 직접 그리신 글의 구조도 분석도 덧붙여, 독서 학습에 필요한 방법들을 빠짐없이 배우고 연습해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미손 교재의 특성상,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기에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더욱 추천드립니다.

김도현

고려대학교 화학과 20학번,
2019. 20수능 백분위 98,
20 6월 원점수 100

수능 국어는 '지문'을 독해할 때부터 승패가 결정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문을 제대로 독해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양치기만 해버리거나 문제에 집중하여 성적이 정체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미손 시리즈'는 수능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지문에 대한 자세한 거시/미시 독해를 제공해 수능 국어 지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런 방식의 정보 제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효율적인가를 제시하여 독해 습관을 교정합니다. 또한, 지문을 읽으며 어떤 것을 지문에 표시해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손글씨를 통해 제시해 일관된 독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리트 지문에 대한 분석도 제시해 기출에 익숙한 수험생들도 낯선 리트 지문을 통해 자신의 국어 독해 습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거미손에 제시된 독해법은 노력한다면 누구나 빠르게 체화시킬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독해 방식입니다. 어려운 지문이 출제되고 있는 수능 국어를 거미손에 제시된 일관된 독해법과 표시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해서 수능이 끝나고 환하게 웃으며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입시 성공을 기원합니다.